

바구니를 옆에 끼고 왼손에는 길쭉스름한 호미를 들고 있다.



흰 누비수건을 머리에 쓰고 저고리 소매를 걷었으며 치마 자락을 걸어 허리에 찌르고 바지를 가든히 걸어올려 무릎 아래 동여매고 걸신에는 들메를 했다.

女人이 서 있는 近處에는 미음을 띠듯 들이 여기저기 피어 있어 질어가는 봄기운이 저절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鄉土色이 담뜰실린 名品이요 부드럽고 品格 있는 筆致와 조촐하고 雅淡한 作風이 볼수록 情이 드는 傑作이라 하겠다.

畫幅의 右下隅에는 「君悅」 두 字를 行書로 韻致 있게 쓰고 그 밑에는 尹愔·君悅의 조그마한 白文方印 두 개를 찍어 놓았다.

畫幅 옆에는 妙한 行書로 쓴 申紫霞의 아래와 같은 題跋이 붙어 있다. 雨苗風葉綠重重 織手青絲出漢宮 滿眼蒼生總如此 思看塗抹畫圖中 紫霞題

이 採艾圖의 作者 尹愔은 「檀城書畫徵」에 보면

尹愔 字君悅 號青阜 一云黃軒 海南人 駱西德熙子 肅宗三十四年戊子生

英祖十一年乙卯進士 斗緒子德熙亦世其畫德熙之子愔亦有絕才(燃藜室別集)

라고 記錄되어 있는 바와 같이 尹愔은 李朝 畫史 中の 巨匠으로 널리 알려져 恭齋 尹斗緒의 孫이요 亦是 恭齋에 못지 않게 이름을 떨친 大畫家 蓮翁 尹德熙의 아들로서 「書畫徵」에 引用된

祭尹君悅文曰 嗚呼尹悅丹青餘事匪爾所重偶然揮洒亦自天縱烟雲草樹花鳥虫魚春夏秋冬濃淡慘舒回薄萬變窮神入虛庖刀合節郢斤生風高超色相不由人工司命降稟一性靈慧手自攸到儘何多藝(石北集)

라는 記錄으로 미루어 보면 尹愔은 그 父祖의 커다란 業績을 繼承한 天才 畫家임을 짐작할 수 있으나 亦是 「書畫徵」에 引用된

尹公嘗取蛺蝶蜻蜓之屬細視其鬚眉粉澤之微而描其形期於肖而後已即此而其精深刻苦可知也(與猶堂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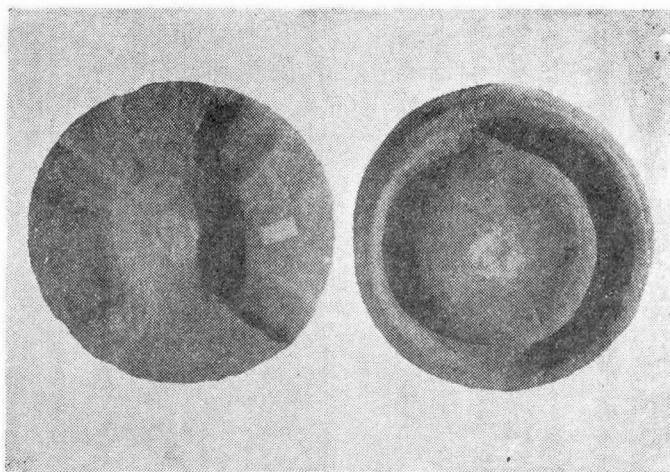
라고 한 것을 보면 天才란 努力의 結果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이 君悅의 大成도 眞摯한 修業의 結晶임에 틀림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이다. 君悅의 作品으로 筆者는 細筆로 된 緻密한 山水圖를 몇 點 보았는데 매우 洗練된 筆致로 그려졌으며 若干의 花卉圖를 보았을 뿐으로 그 솜씨의 精妙함을 짐작할 수 있었던 바 十餘年前에 이 採艾圖를 보고 비로소 그 能熟하고 韻致 있는 筆致에 驚嘆하였다.

後日繼續해서 君悅의 좋은 遺作들이 많이 地上에 나와 紹介되기를 苦待하거나와 이 採艾圖 한 幅만으로도 君悅은 넉넉히 그의 父祖의 커다란 業績을 이어받을 實力이 充分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바이다.

百濟의 陶製硯과 石製硯

洪 思 俊

百濟時代 硯으로 八·一五前後 扶餘附近에서 發見된 것에 다음 數例가



있다.

1、石製硯(完)

八一·五 以前에

扶餘邑附近 (地點不明)에서 나온 것인데 마치 村家에서 使用하는 재떨이 비슷하다. 石質은 淡綠色, 軟石보다 強하고 그 形態는 圓盤形으로 되었다. 먹울 갈던 中央部는 多少 平面보다 淺으며 매끄럽다. 그 밖으로는 깊이 二·八cm의 硯池를 代身하는 물홈(水溝)이 있고 그 外側으로 蓋를 덮었던 데 두리가 들어 있다.

底面다리는 十字形으로 되고 脚部外側에서 中心을 向해서 七·二cm에 이르러서는 半球形으로 三·三cm 깊이도 등하게 파져 있다. 그리고 兩 足間은 外側에서 內側으로 들어가면서 若干 두꺼워졌다. 高五·二cm 直徑二·六cm

2、陶製硯(破片)

(가) 西紀一九五四年 九月二十九日 官北里(現博物館 館舍南方正門)에서 偶然히 地表에서 發見되었다. 外側으로 一條의 凸帶를 가진 二個의 足部가 完全히 附着되었고 다만 墨磨面이 없으며 陶色은 淡黑色이

다.

高八cm 半徑一三cm(復原) 足數一一個(復原)

(나) 八·一五前에 發見된 扶蘇山出土品으로 形態色澤이 前者와 同一하여 足도 二個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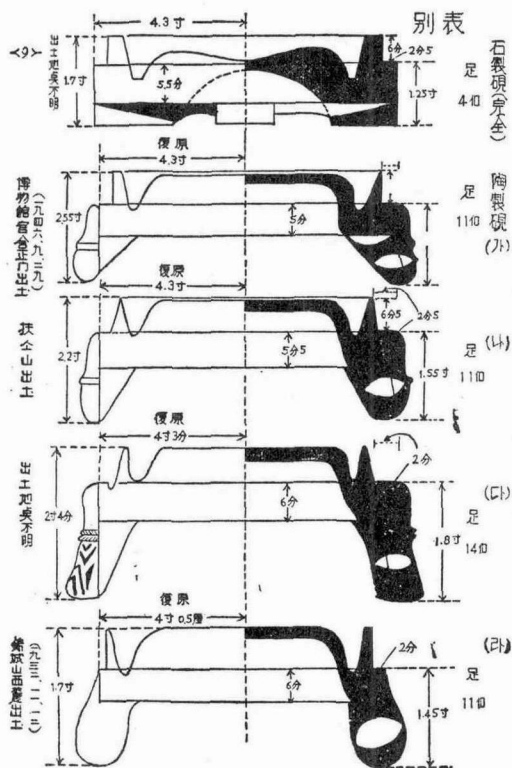
高六·六cm 半徑一三cm(腹面) 足數一一個(腹面)

(다) 三個의 足이 있으나 二個만 完全하다. 足部形態는 馬蹄形인데 위에는 繩形文帶가 二條있고 아래에는 蘆席文같은 彫刻文이 있으며 全體의 硯色은 黑色에 가깝다.

高七·四cm 半徑一三cm(復原) 足數一四個(復原)

(라) 錦城山 西麓에서 西紀一九三二年 一月二二日에 拾得한 것이다. 一個足部가 있는데 比較的 짧아보이며 硯色은 淡黑色이다. 墨磨面이 남아 있는데 먹울 갈았던 關係로 매끄럽다.

高五·二cm 半徑一二·二cm(復原) 足數一一個(復原)



以上에서 石製硯 一個와 陶製硯 四個를 復原(別表)해서 그 尺數를 比較해 보면 兩者間의 製作된 寸法이 거의 比等함을 알겠고 時代的으로 別差異가 있는 것같지 않다.

海外에 紹介된 韓國風俗畫의 一資料

洪 以 燮

近世朝鮮繪畫史의 單調로운 一面에 檀園 金弘道와 蕙園 申潤福等 두 사람의 風俗畫를 지닌 것은 이미 先學들의 指示한 바대로 尊重할 바이지만, 特히 蕙園의 風俗畫는 朝鮮繪畫思想史에 있어 現實描寫에 있어 革命的이었던 點에서 우리 近世市井의 文化에의 基本精神을 理解케 하는데 있어 아직까지 唯一한 資料이었다. 同時에 이것이 檀園, 蕙園當時의 우리 近世의 風俗를 엿보게 하는 것으로 莫重하겠으나 보다 前이나 後의 것을 理解케 할 比較資料가 없는 것은 이 方面研究에 孤寂함을免치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데서 한 資料로써 一部の 風俗畫를 紹介코자 한다. 이것은 Andreas Eckhardt가 韓國美術史 <Geschichte der Koreanischen Kunst O.S. Leipzig, 1929, 같은 해에 英譯本도 있음>에서 베르린 民俗博物館所藏으로 紹介된 것이나, 이 에 앞서 A. E. J. Cavendish (F. R. G. S.), H. E. Gould-Adams (R. A.)의 兩大尉의 「韓國과 白頭山」(Korea and the Secret White Mountain; Being a Brief Account of a Journey in Korea in 1891. London 1894.)에 同一한 風俗畫 二十張이 插入 紹介되었다. 筆者의 過眼한 바로는 筆致의 拙한 것은 姑捨하고 우선 蕙園의 그림과 함께 우리 風俗研究에 이바지될 貴한 것이라 하겠다. 그 中 七張은 菊判型 兩面의 크기로 彩色도 되어 있었고 其外의 十三張은 一面 黑白 單色

이다.

그림의 各面에는 한글 畫題를 적고 아주 서투른 朱印이 찍혔음과 筆致의 拙劣은 아이들은 아이들로 男子는 男子, 女子는 女子로 거의 한 類型을 이루고 있음에서 우습고 興味 있으며 畫面의 穢氣는 畫題가 風俗的인 것이 아니었으면 전 저널 바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素材를 取한 面이 넓은 것은 또한 注視할 바도 퍼 現實에 即한은 높이 評價하여야 할 것이다.

畫題一覽表(×標는 彩色 兩面大)

- 一、적죄(積罪)인 처벌하는 모양(原畫에는 舊式發音에 따른 純한글 記寫이나 여기서는 改訂하여 적어 둔다)
- 二、여인 침공(針工)하는 모양
- 三、베 낫는(麻糸生産) 모양
- 四、검시(檢屍) 하고
- ×五、여인 방적(紡績) 하고
- 六、대장(大匠, 鍛工)장이
- 七、광대 출타고

